

雇 備 職 業 能 力 開 發 研 究
 第16卷(3), 2013. 12, pp. 83~106
 © 韓 國 職 業 能 力 開 發 院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유 정 이** · 최 봉 순***

이 연구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유정이, 2009)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부모와 자녀의 특성변인에 따른 진로지도효능감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에서 표집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1,548명이었다. 연구 결과,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요인으로 32문항의 7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상위요인으로 ‘지지’(하위요인으로는 적극적인 진로지원,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진로교육 경험,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요인과 ‘조절’(하위요인으로는 부정적 정서 경험, 배우자의 관여, 자녀특성의 인식)요인이 확인되었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진로지도효능감은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이 다른 연령의 부모보다 높았다.

- 주제어: 부모역할, 고등학생, 청소년, 진로지도, 진로지도효능감

투고일: 2013년 8월 16일, 심사일: 9월 2일, 게재확정일: 10월 28일

* 이 연구는 유정이 교수의 안식년 기간 중 연구되었음.

** 제1저자(교신저자),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jiryu@anyang.ac.kr)

*** 제2저자,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교사(cbs1223@chol.com)

I. 서 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유정이, 2009)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부모와 자녀의 특성변인에 따른 진로지도효능감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효능감의 개념은 자아효능감에 대한 Bandura(1977)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효능감이란 어떤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며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원천 그리고 행동의 방향을 포함한 '지각된 효능성'이라고 설명했다. 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과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제-특수적 신념이라고 하였다(Bandura, 1997). 따라서 특정 영역에 대한 효능감은 개인의 총괄적인 특성이 아니라 특정 영역과 과제에서 개인이 지각하고 평가하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로 정의할 때,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과 같이 영역 특수적인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은 '자녀의 진로발달과 선택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자녀지도와 관련된 효능감은 양육효능감 척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에 대한 자신감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성되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더 일관성 있고 유연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효능감 척도는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며 부모가 행하는 실제 양육행동과의 관련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 자녀지도에 관한 과제특수적인 척도의 개발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청소년 자녀의 진로지도는 부모의 역할 중 하나로서, 부모만의 일방적인 자신감이나 지원행동만이 아닌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고 배우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자신감 이외에도 부모 자신에 대한 관찰과 상황에 대한 판단 등 자기 조절적 기제가 잘 수행되는가에 대한 요인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Zimmerman과 Bandura(1994)는 자기조절이 효능감 구인의 중요한 부분임을 밝혔

다. 효능감은 활동의 영역과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발휘된다. 과제의 수준과 난이도가 다르고 상황적 여건이 다를 때,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조절과정이 요구된다. Bandura(1997)에 의하면 효능감은 각 과제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과제와 중간 정도의 난이도 혹은 가장 까다로운 과제에 대한 각 개인의 지각된 효능감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과제 영역에서의 효능감은 과제수행에 부가되는 도전이나 장애 등의 환경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효능감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효능감 측정 시 효능감의 영역뿐 아니라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조건과 환경 그리고 과제의 수준(level)을 평가하는 자기조절의 측면을 고려하여 측정학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미 개발된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척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신감과 정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예를 들면 적극적 지지, 자율과 책임의 부여 등)과 부적으로 관련된 요인(예를 들면 부모의 부정적 정서 경험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진로지도 효능감 전체 중에서 진로지도에 관한 자신감을 대표하는 요인과 부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요인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이 구성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7가지의 구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한 유정이(2009)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은 '적극적인 진로지원',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부정적 정서 경험', '진로교육 경험', '배우자의 관여', '자녀특성의 인식',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의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척도는 요인 간 구성개념의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요인의 수도 많아 실용적으로 사용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최근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할과 행동이 단일 차원이 아니며 각각의 부모 관여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Domina, 2005; Jeynes, 2005)들이 있어 부모 진로지도에 대한 연구도 다차원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효능감 척도(유정이, 2009)의 요인구조가 타당한지 확인함과 동시에 이들 요인이 기존의 이론적 경향과 일관성을 갖도록 요약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연구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과 경기도 거주 어머니를 주 연구대상으로 했다면, 본 연구는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표집을 실시하였다. 고등학생 학부모는 중학생 학부모와는 다른 진로지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성화고와 특목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 따른 차이도 주목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화를 통해 향후 부모의 진로지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구성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은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부모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비쳐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부모와의 갈등(Gati, Krausz & Osipow, 1996)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부모위주의 진로결정(김수리·이재창, 2007)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기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긴밀하며 자녀들도 부모의 조언이나 기대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진로대안을 확장하거나 중요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실성 있는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선혜연, 2008).

부모는 전 생애에 걸쳐 자녀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진로발달 및 선택 행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 결과(김지현·김계현·유정이·황매향·노경란, 2007; 진미석·손유미, 2000; 한상근, 2001)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선호 직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이 부모요인이며,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Gati et al.(1996)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청소년 진로미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반면, 부모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도움행동은 자녀의 진로탐색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강화요인으로 작용한다(김수리 외, 2007; 김지현 외, 2007).

청소년의 진로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부모의 역할수행은 부모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깊이 관련된다. 자녀의 진로지도 행동을 유발하는 내재적 동기인 부모의 진로지도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지도에 주도성을 가지고 임하며, 효율적인 부모 역할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습득하고 진로지도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게 한다(선혜연, 2008).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은 현대사회에서 부모역할수행 및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운 부모에게 요구되는 인지적 특성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해 효능감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지도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진로발달을 이끌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Miller, Forehand, Kotchick & Dorsey, 1999).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녀의 자기이해를 촉진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하며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도움행동을 전달하여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김지현 외, 2007).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자신감 및 유능감을 향상시키고, 기능적인 진로사고를 촉진하여 진로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녀의 진로결정 및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수리 외, 2007; Gati et al., 1996). 부모의 지지란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으로 정의되는데,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그리고 정보적 지지로 분류된다(김수리 외, 2007).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흥미를 추구하도록 하고, 특정한 진로 흥미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녀의 효능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Jeynes, 2005).

또한 최근에는 부모의 역할을 지지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진로지도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부모의 관여행동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부모 관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의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선혜연, 2008; 최봉순, 2011; Fan, 2001; Fan & Williams, 2010). 부모의 관여행동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것(Fishel & Ramirez, 2005)으로 정의된다. 진로지도의 측면에서 부모의 관여는 '신티와 위임', '격려와 지지', '정보제공 후 판단위임', '구체적 정보와 방법제공', '정보에 기초한 추천', '부모의 경험에 기초한 권유', '부적합한 조건에 대한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선혜연, 2008).

부모는 자녀의 진로선택에서 발견되는 부적합한 조건에 대해 지적하거나 다른 대안을

권유하고, 진로대안이 확장되거나 선별되도록 지도하기도 하며 진로탐색 과정을 비평하기도 한다(Phillips, Blustein, Jobin-Davis & White, 2002). 이는 지지와는 달리 매우 강도 높은 관여행동으로 평가된다. 부모의 진로지도 및 관여행동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출생순위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녀도 자신의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혹은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위해 부모의 관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행동에 대한 자녀의 수용 정도 또한 자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선혜연, 2008). 이에 대해 최봉순(2011)은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행동을 자녀의 진로능력지도와 자녀의 진로태도지도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진로지도는 단일 차원의 역할이 아니고 상이한 행동의 집합체로 인식되고 있다.

2.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신숙재, 1997).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부모역할에서의 유능감, 부모-자녀관계에서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 그리고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정서적 불안을 다루어 왔다. 높은 부모효능감은 구체적인 부모역할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지적인 환경의 제공, 부모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행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안선희·김선영, 2004). 반면, 낮은 부모효능감은 자녀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부정적 정서, 강제적인 훈육방식의 사용, 학대 등과 관련되어 있다(이혜승,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의 진로지도라는 역할수행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린 평가를 진로지도효능감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즉 자녀가 진로에 관한 포부를 가지고 활발한 진로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안내하며, 진로발달에 필요한 능력과 성숙한 태도를 가진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바로 부모 진로지도효능감이다. 부모의 진로지도효능감은 맥락-특수적인 자기효능감이다.

부모가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해 효능감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모의 자녀지도에 대한 높은 효능감은 긍정적 부모역할의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예언요인이며,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녀지도행동은 물론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Dawning & D'Andrea, 1994).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구성요인을 밝힌 유정아(2009)는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7요인(적극적인 진로지원,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부정적 정서 경험, 진로교육 경험, 배우자의 관여, 자녀특성의 인식,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 32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지도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1) 자녀의 진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자녀를 믿고 기다리며 수용하고 격려한다, (3) 자녀지도에 대해 걱정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4)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5) 자녀지도에 배우자와 협력한다, (6) 자녀도 진로발달에 대한 동기가 높다, (7)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은 자아효능감, 부모효능감 그리고 자녀지도행동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정보를 찾아주거나,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인 진학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의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진로지도효능감을 경험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부모의 불안, 걱정, 후회, 혼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진로지도효능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부모가 경험하는 불안의 주요 원인은 진로지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신의 내적 요인과 달리 '배우자의 관여' 혹은 '자녀의 특성'과 같은 맥락적 변인도 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Ⅲ. 연구 방법

1. 대상

연구대상은 전국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1,548명이었으며, 그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3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특별시, 전라도, 인천광역시 순이었다. 대도시(광역시 이상)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많았다. 월 가계수입은 201~400만 원이 41.1%로 가장 많았고, 직업이 없는 어머니보다는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93.1%로 나타났다. 자녀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범주	빈도	백분율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236	15.2
	경기도	605	39.1
	인천광역시	150	9.7
	강원도	50	3.2
	충청도	119	7.7
	전라도	204	13.1
	경상도	137	8.8
	제주도	47	3.0
도시 구분	대도시	386	25.9
	중소도시	1002	64.7
	읍면단위	160	10.3
연령	30대	44	2.8
	40대	1274	82.3
	50대 이상	230	14.9
월 수입	200만 이하	307	19.8
	201~400만 원	637	41.1
	401~600만 원	373	24.1
	601~800만 원	126	8.1
	801~1,000만 원	66	4.3
	1001만 원 이상	39	2.5
직업 유무	유	983	63.5
	무	565	36.5
최종 학력	초등학교	40	2.6
	중학교	67	4.3
	고등학교	860	55.6
	대학교 이상	581	37.5
	계	1,548	100.0

<표 2> 자녀의 특성

구분	범주	빈도	백분율
학년	고 1학년	662	42.8
	고 2학년	507	32.8
	고 3학년	379	24.4
성별	남	643	41.5
	여	905	58.5
학교 유형	특목고	152	9.8
	자율고	250	16.1
	특성화고	500	32.3
	일반고	646	41.7

2. 측정도구

가.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

유정이(2009)가 개발한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진로지도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은 <표 3>과 같이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85로 나타났다. 자녀의 진로발달과 선택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효능감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진로지도효능감이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유정이(2009)의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
적극적인 진로지원	8	.862	.866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6	.852	.892
부정적 정서 경험	6	.804	.804
진로교육 경험	3	.744	.708
배우자의 관여	3	.744	.695
자녀특성의 인식	3	.680	.575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	3	.693	.768
전 체	32	.904	.885

IV. 연구 결과

1. 구인 타당도 분석

유정이(2009)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6.0K를 사용하여 1단계와 2단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AMOS 16.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딩된 1,548개의 데이터 중 홀수데이터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짝수 데이터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1단계 탐색적 요인분석

척도개발을 위한 개념 타당성 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에 의한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의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표 4>와 같이 7개가 추출되었다. 누적설명량이 60.017로 전체적인 설명량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적극적 진로 지원	1	.574						
	2	.609						
	3	.709						
	4	.748						
	5	.708						
	6	.675						
	7	.583						
	8	.621						
수용과 격려	9		.676					
	10		.729					
	11		.800					
	12		.785					
	13		.801					
	14		.712					
부정적 정서 경험	15			.668				
	16			.798				
	17			.732				
	18			.736				
	19			.657				
	20			.530				
진로 교육 경험	21				.594			
	22				.824			
	23				.767			
자녀의 특성 인식	24					.644		
	25					.602		
	26					.541		
배우자의 관여	27						.394	
	28						.727	
	29						.836	
자율과 책임 부여	30							.679
	31							.769
	32							.610
고유값		4.484	4.146	3.194	2.145	2.086	1.648	1.503
설명량		14.011	12.956	9.980	6.702	6.519	5.151	4.698
누적 설명량		14.011	26.967	36.947	43.649	50.168	55.319	60.017

주: 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2)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

나. 2단계 탐색적 요인분석

2단계 탐색적 요인분석은 1단계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하여 구성된 하위요인을 그룹화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2단계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두 개의 요인명은 지지와 조절로 정의하였다. 전체의 설명량은 59%로 분석되었다.

<표 5> 2단계 탐색적 요인 분석 신뢰도

요인	하위요인	지지	조절
지지	적극적 진로지원	.823	
	수용과 격려	.709	
	진로교육 경험	.717	
	자율과 책임	.740	
조절	부정적 정서 경험		.815
	자녀의 특성인식		.479
	배우자의 관여		.706
고유값		2.462	1.633
설명량		35.171	23.328
누적설명량		35.171	58.499

<표 6> 요인 간 상관 및 분석 결과

구분	지지	조절	전체
지지	-		
조절	.320**	-	
전체	.816**	.808**	-

** $p < .01$

요인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지지’와 ‘조절’의 상관계수 $r = .320$, ‘지지’와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와 $r = .816$, ‘조절’과 진로지도효능감 전체와 $r = .808$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성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별 상관분석을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요인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구성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적극적 진로지원-진로교육 경험, 자녀의 특성인식-자율과 책임, 배우자의 관여-진로교육 경험 등간의 상관계수가 낮은 것이 확인되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지와 하위요인 4개의 상관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상관계수 $r = .678 \sim .828$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절과 하위요인 3개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이 상관계수 $r = .674 \sim .750$ 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하위요인 간 상호상관

	a	b	c	d	e	f	g
a	1						
b	.552**	1					
c	.079**	.183**	1				
d	.461**	.280**	-.137**	1			
e	.249**	.377**	.219**	.171**	1		
f	.179**	.246**	.344**	.052*	.245**	1	
g	.532*	.498**	.099**	.312**	.371**	.224**	1

주: a-적극적 진로지원, b-수용과 격려, c-진로교육 경험, d-자율과 책임, e-부정적 정서 경험, f-자녀의 특성인식, g-배우자의 관여

<표 8> 지지와 하위요인 간 상호상관

	지지	적극적 진로지원	수용과 격려	진로교육 경험	자율과 책임부여
지지	1				
적극적 진로지원	.828**	1			
수용과 격려	.768**	.552**	1		
진로교육 경험	.678**	.461**	.280**	1	
자율과 책임	.771**	.532**	.498**	.312**	1

<표 9> 조절과 하위요인 간 상호상관

	조절	부정적 정서 경험	자녀의 특성인식	배우자의 관여
조절	1			
부정적 정서 경험	.724**	1		
자녀의 특성인식	.674**	.219**	1	
배우자의 관여	.750**	.344**	.245**	1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거된 변수들을 제외한 측정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단일 차원성 및 요인들 간의 외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개의 상위요인 구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1단계(first-order)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1단계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도출된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2단계(second-order) 요인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개선하여 좀 더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이용하였다. 수정지수는 각 변수들 간에 추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비추정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론적 정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면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새로 추가함으로써 수정지수 값만큼의 카이제곱 값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가. 1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지지요인과 조절요인에 대하여 [그림 1]과 [그림 2]의 결과를 얻었다.

‘지지’요인의 적합지수는 $\chi^2=1203.488$, 자유도(d.f)=164, $p=0.000$, GFI=0.925, AGFI=0.904, TLI=0.913, CFI=0.925, RMR=0.034, RMSEA=0.064로 좋은 적합도로 판명되었다. ‘조절’요인의 적합지수는 $\chi^2=501.864$, 자유도(d.f)=47, $p=0.000$, GFI=0.950, AGFI=0.917, TLI=0.854, CFI=0.896, RMR=0.074, RMSEA=0.079로 양호한 적합지수를 얻었다. 따라서 ‘지지’요인과 ‘조절’요인 모두에서 각 측정문항이 구성개념에 유의하게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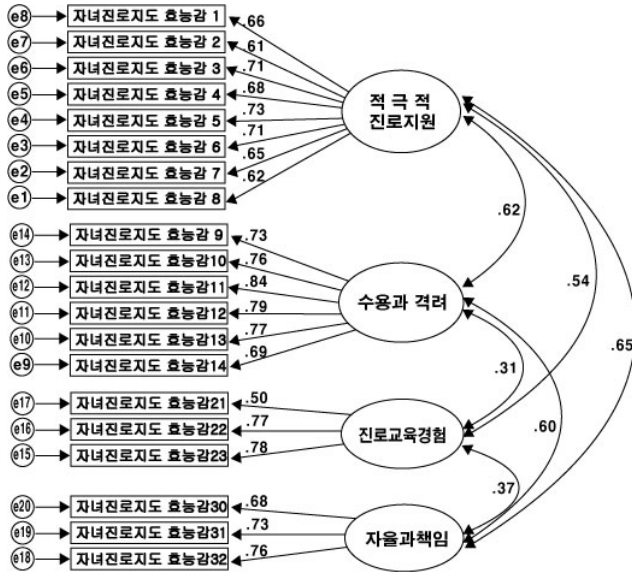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표 10>과 같이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의 평균은 3.32, 표준편차는 .39로 분석되었다.

‘지지’는 평균이 3.42, 표준편차는 .49로, ‘조절’은 평균 3.22, 표준편차는 .48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별로는 평균이 3.01~3.67, 표준편차는 .60~.69까지로 분석되었다.

<표 10>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요인	하위요인	M	SD
자녀 진로 지도효능감 (M=3.32, SD=.39)	지지 (M=3.42, SD=.49)	적극적 진로지원	3.42	.60
		수용과 격려	3.67	.66
		진로교육 경험	3.01	.66
		자율과 책임	3.58	.65
	조절 (M=3.22, SD=.48)	부정적 정서 경험	3.07	.66
		자녀의 특성인식	3.17	.66
		배우자의 관여	3.43	.69

[그림 1] '지지'요인의 1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그림 2] '조절'요인의 1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 2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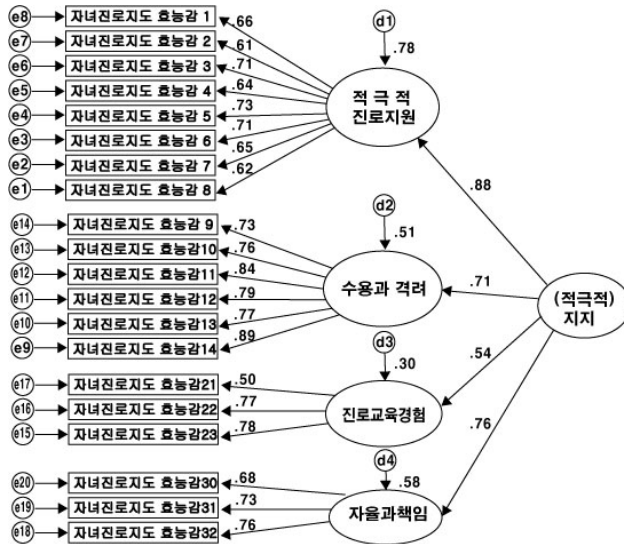
2단계 확인적 요인분석은 1단계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하위의 구성개념들이 개별적인 성질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상위차원의 하위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첫째, '지지'요인의 4개의 하위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적합지수는 $\chi^2(166, N=1,548)=1249.015, p=0.000, GFI=0.921, AGFI=0.900, TLI=0.910, CFI=0.922, RMR=0.035, RMSEA=0.065$ 로 좋은 적합도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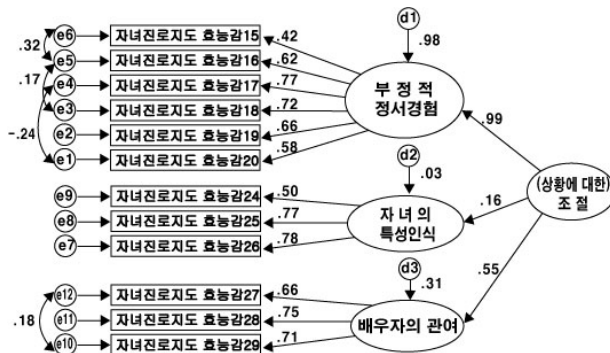
또한 상위차원과 하위차원 간의 경로 추정치가 유의적이고 각 측정항목이 구성개념에 유의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극적 진로지원’,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진로교육 경험’,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부여’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효능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하위차원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조절’요인의 3개의 하위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으며, 적합지수는 $\chi^2(48, N=1,548)=501.870, p=0.000, GFI=0.950, AGFI=0.919, TLI=0.857, CFI=0.896, RMR=0.073, RMSEA=0.078$ 로 양호한 적합지수를 얻었다.

[그림 3] ‘지지’요인의 2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그림 4] ‘조절’요인의 2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또한 상위차원과 하위차원 간의 경로 추정치가 유의적이고 각 측정항목이 구성개념에 유의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 경험', '자녀의 특성인식', '배우자의 관여'는 부모가 상황에 대한 조절을 통하여 자녀의 진로효능감을 위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하위차원임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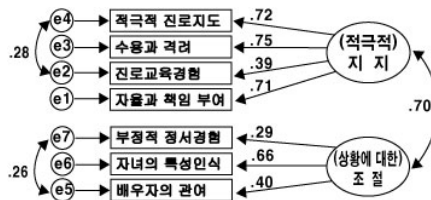
다.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 구성개념을 포함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chi^2(11, N=1,548)=164.706, p=.000, GFI=.971, AGFI=.927, TLI=.876, CFI=.935, RMR=.022, RMSEA=.075$ 로 자녀의 진로지도효능감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모형의 적합도 평가

Model	χ^2	df	GFI	AGFI	TLI	CFI	RMR	RMSEA
지지	1249.015	166	0.921	0.900	0.910	0.922	0.035	0.065
조절	501.870	48	0.950	0.919	0.857	0.896	0.073	0.078
전체	164.706	11	0.971	.927	0.876	0.935	0.022	0.075

[그림 5]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12>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관측 변수	잠재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CCR	AVE
적극적 진로지원	<← 지지	.933	.719	.042	22.333**	.874	.647
수용과 격려	<← 지지	1.053	.746	.046	22.671***		
진로교육 경험	<← 지지	.549	.388	.043	12.687***		
자율과 책임	<← 지지	1.000	.713				
부정적 정서 경험	<← 조절	1.000	.796			.832	.624
자녀의 특성인식	<← 조절	.911	.788	.052	17.539***		
배우자의 관여	<← 조절	.850	.694	.055	15.339***		

주: ***p < .001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알아보기 위해 개념신뢰성(CCR)과 분산추출지수(AVE)를 계산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그림 5], <표 12>와 같다.

3. 신뢰도 분석

본 조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신뢰도 계수

구분	요인명	하 위 요인명	문항 번호	문항-전체 상관	문항제거시 신뢰도	신뢰도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 .885)	적극적 진로지원(8)		1	.597	.852	.866	
			2	.568	.855		
			3	.661	.845		
			4	.637	.848		
			5	.667	.845		
			6	.644	.847		
			7	.587	.853		
			8	.579	.854		
	지지 신뢰도 (Cronbach's α = .911)	수용과 격려(6)		9	.679	.879	.892
				10	.718	.873	
				11	.774	.864	
				12	.722	.872	
				13	.730	.871	
				14	.656	.883	
진로교육 경험(3)			21	.411	.758	.708	
			22	.612	.509		
			23	.566	.567		
자율과 책임(4)			30	.564	.727	.768	
			31	.639	.645		
			32	.600	.689		
조절 신뢰도 (Cronbach's α = .761)	부정적 정서 경험(6)		15	.435	.801	.804	
			16	.635	.756		
			17	.628	.758		
			18	.644	.754		
			19	.573	.771		
			20	.454	.796		
	자녀의 특성인식(3)			24	.191	.565	.575
				25	.409	.475	
				26	.419	.455	
	배우자의 관여(3)			27	.375	.683	.695
28				.417	.541		
29				.500	.474		
		합계	32개			.885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검사도구의 전체 문항내적일치도는 .885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지지' 문항내적일치도는 .911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지만 '조절' 문항내적일치도는 0.76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심리검사의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허용범위가 .70임을 감안할 때,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는 문항의 동질성이 높은 검사로 판단할 수 있다. '자녀의 특성인식' 하위요인의 문항 24는 문항-전체상관이 통계적 의미수준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학업의욕에 대한 부모의 판단을 측정하는 부정형의 문항으로 분석단계에서 제거를 검토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 부하량이 .664로 비교적 높은 값을 유지한 요인이므로 연구자간 협의를 통하여 문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채택하였다.

4. 변인에 따른 진로지도효능감 차이분석

거주 지역에 따라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하위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와 같이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라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하위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지와 조절 및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지와 조절 및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 모두 어머니의 학력이 중학교인 경우가 가장 낮고, 대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하위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지'와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지와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50대 이상보다 40대가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에 따라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하위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지와 조절 및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지와 조절 및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 모두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은 낮게 나타났다. Duncan 사후검정 결과 고2, 고3학년과 고1학년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라 자녀 진로지도효능

감의 하위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지, 조절,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4> 변인에 따른 진로지도효능감의 차이

분류	N	지지		조절		진로지도효능감 전체		Duncan 사후검정
		M	SD	M	SD	M	SD	
대도시	386	3.47	0.49	3.22	0.49	3.34	0.39	
중소도시	1,002	3.41	0.49	3.23	0.48	3.32	0.40	
읍면단위	160	3.38	0.47	3.21	0.44	3.29	0.37	
F(p)		2.725(0.066)		0.234(0.791)		0.955(0.385)		
중졸 이하(a)	107	3.31	0.52	3.14	0.40	3.23	0.37	a=b<c
고등학교(b)	860	3.37	0.49	3.18	0.46	3.27	0.37	
대졸 이상(c)	581	3.51	0.47	3.31	0.52	3.41	0.41	
F(p)		17.977(0.000***)		14.761(0.000***)		25.017(0.000***)		
40대	1,274	3.43	0.49	3.23	0.48	3.33	0.40	
50대 이상	230	3.36	0.49	3.20	0.47	3.28	0.40	
t(p)		2.222(0.026*)		1.036(0.300)		2.006(0.046*)		
고1(a)	662	3.47	0.48	3.27	0.50	3.37	0.40	b=c<a
고2(b)	507	3.38	0.50	3.21	0.47	3.29	0.40	
고3(c)	379	3.38	0.48	3.16	0.45	3.27	0.36	
F(p)		6.77(0.001**)		7.188(0.001**)		10.127(0.000***)		
특목고(a)	152	3.56	0.46	3.48	0.56	3.52	0.43	c=d<b<a
자율고(b)	250	3.46	0.50	3.28	0.50	3.37	0.43	
특성화고(c)	500	3.42	0.49	3.15	0.46	3.28	0.37	
일반고(d)	646	3.37	0.48	3.20	0.45	3.29	0.37	
합계	1,548	3.42	0.49	3.22	0.48	3.32	0.39	
F(p)		7.52(.000***)		20.575(.000***)		18.354(.000***)		

주: *p<.05, **p<.01, ***p<.001

‘지지’와 ‘조절’ 및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전체 모두는 특목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지’는 일반고, 조절과 효능감 전체는 특성화고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특성화고, 일반고와 특목고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유정이, 2009)의 다차원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관련 변인과의 외적 관계를 분석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의 학부모 1,5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대해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극적인 진로지원,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부정적 정서 경험, 진로교육 경험, 배우자의 관여, 자녀특성의 인식 그리고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의 7개의 하위요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연구(유정이, 2009)와 일치하였다. 척도의 내적합치도로 확인된 신뢰도도 양호함을 보여주었다. 기존 부모의 진로지도효능감 타당화 연구가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 전국적인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다만 7개의 요인 간 상관에서 적극적 진로지원-진로교육경험, 자녀의 특성인식-자율과 책임, 배우자의 관여-진로교육 경험 등간의 상관계수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2차 요인 간 분석에서 각각 '지지'와 '조절'의 상위요인에 걸쳐 있는 요인들로서 이들이 단일요인으로 묶이기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묶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고 추가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제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되었던 7개의 요인구조가 2개의 요인으로 그룹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차 요인으로 구성된 모델은 물론 2차 요인을 가정한 모델의 적합도도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2차 요인은 '지지'와 '조절'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지지'요인으로는 적극적인 진로지원,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진로교육 경험 그리고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의 하위요인이, '조절'요인의 하위요인은 부정적 정서 경험, 배우자의 관여, 자녀특성의 인식요인이 포함되었다. '지지'요인은 재정적, 심리적 지원과 자율성 부여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적극적 학습 등이 포함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지원을 포괄하였다.

셋째, 효능감 이론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과제의 난이도와 주어진 상황에 따른 조절요

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Bandura(1997)에 의하면 효능감은 각 과제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과제 영역에서의 효능감은 과제수행에 부가되는 도전이나 장애 등의 환경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효능감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할 수 있다. 자녀의 진로지도효능감에 있어서 자녀와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경험 유무, 배우자의 관여 정도 그리고 자녀의 특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상황적 조건으로 하여 효능감 조절의 측면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측정 시 효능감의 영역뿐 아니라 과제의 수준을 평가하는 자기조절의 측면을 고려하여 측정학적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이 연구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고등학생 시기는 진로탐색은 물론 진학을 위한 입시와 진로결정이 주된 과제인 시기이다. 중학생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었다. 자녀의 지도에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척도의 타당화와 추가적인 교차타당화 연구를 통해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의 선택과 적응은 아버지의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박은선·이재창, 2009)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에서 배우자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한국 부모들의 인식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부모의 진로지도효능감이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학년과 소속 학교의 상황에 따라, 부모의 학력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향후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수리·이재창(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393~407쪽.
- 김지현·김계현·유정이·황매향·노경란(2007). 『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은선·이재창(2009).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0권 제2호, 947~965쪽.
- 선혜연(2008). 「청소년기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의 관여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선희·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12호, 219~231쪽.
- 유정이(2009).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개발」, 『아시아교육연구』, 85~104쪽.
- 이혜승(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 수행과의 관계: 재미동포 한인 1세대 부모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4권 제3호, 57~72쪽.
- 진미석·손유미(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최봉순(2011).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진로지도행동 척도 개발」,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상근(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 191~215.
- _____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Dawning, J. & D'Andrea, L. M.(1994).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career descision making",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Vol.31, pp. 115~126.
- Domina, T.(2005). "Leveling the home advantage: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Vol.78, pp. 233~249.
- Fan, W. & Williams, C, M.(2010). "The effect of parental involvement on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engagement and intrins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y*, Vol.30 No.1, pp. 53~74.
- Fan, W.(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13, pp. 1~22.
- Fishel, M. & Ramirez, L.(2005). "Evidence-based parent involvement interventions with school-ag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20 No.4, pp. 371~402.
- Gati, I., Krausz, M. &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3, pp. 510~526.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Jeynes, W. H.(2005).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to urb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cademic achivement", *Urban Education*, Vol.40, pp. 237~269.
- Miller, K., Forehand, R., Kotchick, B. & Dorsey, S.(1999). "Adolescent sexual risk-taking behavior in single-parent ethnic minority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3 No.1, pp. 93~102.
- Phillips, S. D., Blustein, D. L., Jobin-Davis, K. & White, S. F.(2002). "Preparation for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view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61, pp. 1~15.
- Zimmerman, B. J. & Bandura, A.(1994). "Impact of self -regulatory influences on writing course attai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29, pp. 845~862.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Guidance Efficacy Scale

Ryu Jeongyi

Choi Bong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guidance efficacy scale (Ryu Jeongyi, 2009) of the parents of high school students. We also attempted to reveal the differences in career guidance effica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A total of 1,548 parents of high school students across Korea were surveyed. The study identified 7 factors represented by 32 items regarding career guidance efficacy. The 7 factors can be categorized into 2 higher factors for career guidance efficacy: "support" (sub-factors: active career support, acceptance and encouragement for children,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nd giving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o children) and "regulation" (sub-factors: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the spouse's involvement, and awareness of child characteristics).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internal consistency and retest reliability were used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measure construct validity.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career guidance efficacy and where the participants live. However, career guidance efficacy is greater when the mother's education level is high and when the children are in lower grades. By age, career guidance efficacy of parents in their forties was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age group.

Key word: Parenting, High school student, Youth, Career guidance, Career guidance efficacy